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6.5



네팔_믿음의가정

네팔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면 가족 모두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 프라카시와 모니카, 아누처럼 기독교인의 가족이란 이유로 일가 친척과 가문에게 배척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그렇겠지만, 특히 네팔은 모든 중요한 결정이 항상 한 가족의 가장이나 지역 사회 지도자에 의해 내려지는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네팔에도 소규모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지만 성도들은 극단주의 힌두교도들, 또는 심지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허위 고발이나 괴롭힘, 구타를 당하곤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불가촉천민(untouchables)으로 간주되어 사회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이들은 ‘문화와 가정을 파괴’하며 외국 종교를 전파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번 호 소식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을 세워주시는지에 대한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네팔 가정들이 큰 환란 가운데서도 한 공동체로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번 호에 실린 이야기 외에도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아내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한 한 남성에게 관한 독점 기사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 시바 신을 떠나다

네팔의 힌두교 사제였던 한 여성이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명예를 잃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했다.

아누 다니(Anu Dani)는 단순히 힌두교의 시바(Shiva) 신을 숭배하는 신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파괴의 신이라 알려진 시바 신을 위해 고행하는 수도자, 이른바 사드비(sadhvi)였다. 사드비, 그리고 남성 수도자를 지칭하는 사두(sadhus)는 물질 세계를 거부한다. 이들 중 일부는 심지어 자신이 물질적 욕망에 대해 죽었음을 상징하여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기까지 한다. 이들은 그 헌신과 고행으로 인해 힌두교도들 사이에서 신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아누 역시 열정적 헌신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지역 사제들은 그녀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러 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지 않고, 일종의 여사제로서 사원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허용해주기도 했다.

“시바 신을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사원에 들어가면 몇 시간씩 명상에 잠겼었어요”라고 아누는 말했다. 심지어 아누는 그녀가 섬기던 신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을 뺨처럼 엉키게 땅아 정수리에 쌓아 올렸고, 물감과 신성한 구슬로 온 몸을 장식했다. 그러한 헌신에 보답이라도 받은 듯, 아누는 점술과 치유 능력을 얻었고 그 기술로 풍족한 수입과 명성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문제가 생겼다. 아누의 갓난쟁이 딸인 모니카(Monika)가 중병에 걸리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치유자로 여기는데, 정작 내 딸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겐 너무 가혹한 일이었지요. 그런 이유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누가 말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기꺼이 모니카와 아누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아누는 기도가 끝났을 때 모니카의 몸에서 흑과 홍기가 사라졌던 것을 떠올렸다. 아누는 그 교회의 하나님이 진짜 신(神)임을 확신했다. 모니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남편 프라카시(Prakash)를 만난 아누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교회에 갈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그래, 나도 갈게.”

선택

아누가 생각하기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었다. 그분께서 자신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으니, 그분께 헌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은 상황이 똑같이 보이지 않았다. “네 딸은 이미 다 나왔으니, 더는 교회에 갈 필요가 없잖나!”라고 가족들은 주장했다.

가족들은 남편 프라카시에게 힌두교로 돌아올 것을 더욱 강하게 촉구했다. 프라카시는 부모가 윤회의 굴레 속에서 더 나은 환생을 보장받도록 장례 의식을 치러야 할 책임을 가진 장남이었다. 결국 그는 망설이다가 굴복하고 말았다. 하지만 아누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켰다.

아누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은 그녀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아누를 가족의 집에서 쫓아냈다. 아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르쳐 준 교회의 목사는 아누가 교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



▶ 아누는 한때 자신의 삶을 지배하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를 얻었다.



▲ 힌두교 신을 숭배하는 수행자인 사두와 사드비들은 세속적인 삶을 버린다. 그중 일부는 점술이나 치유 등을 행하며 생계를 이어가기도 한다. 치유를 행하던 아누는 자신의 딸을 치유할 수가 없었다.

그 목사는 아누에게 특별히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고 격려해 주었다. “언젠가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목사가 말했다. 아누도 그렇게 믿었고, 한밤중에 자다 깨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까지 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낼 즈음, 남편 프라카시가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들은 교회에서 약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마을로 돌아가 살기로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반대를 마주해야 했다.

네팔 사회는 카르마(karma), 즉 사람의 환생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응보(업보)의 영적 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힌두교의 카스트 caste 제도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각 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카스트 내에서 결혼하고, 일하며, 사교 활동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다른 카스트, 특히 자신보다 낮은 카스트와 교류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순결성에 영향을 미친다. 힌두교였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원래 지녔던 카스트와 상관없이 낮은 카스트로 취급받는 일이 매우 잦다.

아누와 프라카시의 가족은 네팔에서 상위 카스트에 속하는 체트리 Chhetri 카스트였지만,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최하위 카스트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아누와 프라카시에게 “외국의 낯선 신을 받아들였으니, 너희는 이제 불가촉천민(타계급이 닿는 것조차 금지된 최하층 계급)이 된 거지”라고 했다.

지역 주민들은 두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고, 우물도 못 쓰게 했다. 그래서 아누와 프라카시는 물을 길기 위해 먼 곳까지 다녀와야 했다. 이들이 가진 것이라곤 집에서 쫓겨날 때 입고 있던 옷가지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실과 고립도 두 사람의 믿음을 꺾지는 못했다. “어려움도, 핍박의 상황도 있었지만, 믿음만은 굳게 지켰습니다.” 아누가 말했다.

불과 일주일 후, 아누와 프라카시는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회는 강가에서 두 사람에게 세례식을 행했고, 목사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이들에게 옷을 한 벌씩 선물해주었다.



▲ 힌두교 전통에 따라 장남이 부모의 장례식을 주관하는데, 여기에는 고인의 시신을 안치한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는 역할도 포함된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승자

현지 교회와 전 세계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은 아누와 그 가족에게 허락하신 공급과 돌보심은 지역 사회에 큰 증거가 되고 있다. 교회는 이 가족을 위해 우물을 파주었고, 염소를 기를 수 있는 작은 집도 마련해 주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모욕을 퍼붓곤 했지만, 지금은 예전에 말도 걸지 않던 사람들조차 우리와 대화도 나누면서 교류하고 있어요”라고 아누는 말했다.



두 사람은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에 다니며 신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들이 마을로 돌아가자 목사는 이들에게 한 가지 새로운 과제를 주었다.



다른 세 가정과 함께 그 지역의 한 가정 교회에 다니라는 요청이었다. 그 세 가정은 아누 부부가 이전까지 자신보다 훨씬 낮은 계층이라 여겼던 달릿 Dalit 카스트 출신들이었다. 아누와 프라카시는 힌두교 카스트 제도에 얽매기보다 기독교 공동체를 선택하기로 하면서 이 과제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한동안 아누는 사드비 수행 시절 자신의 사진 한 장과 명상용 염주 등 몇 가지 물건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아누는 예전의 삶을 돌아보는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기 위해 그 물건들을 영원히 치워버려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누는 과거의 그 시절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나타내기 위해 즉시 그 물건들을 내다버렸다.

이제 아누는 우상을 통해 신비로운 힘을 얻으려는 유혹에 빠지기보다 기도를 무기로 삼는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다시 마을을 떠나야 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누가 말했다.

2026년 5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1
					2
3	4	5	6	7	8
 베트남 믿음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투옥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스리랑카 불교도들의 반대로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베네딕트 목사의 교회를 위해	 필리핀 민다나오섬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행2:38)	 레바논 레바논의 무슬림 난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김에 감사	 카자흐스탄 성도들이 강건해져서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사 41:10)	
10	11	12	13	14	15
 마다가스카르 무슬림에게 복음 전하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함 주시기를	 니카라과 체포되거나 위협당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도록	 카타르 예배를 위해 모일 때 보안이 철저해야 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튀니지 99%가 수니파 무슬림인 튀니지 국민이 예수님을 믿도록	 파키스탄 타비시, 칼루, 소니아, 사미아 등 신성모독 혐의를 받는 많은 성도를 위해	
17	18	19	20	21	22
 쿠바 온라인으로 전도하는 성도들이 여러 보복에 담대함과 지혜로 대처하도록	 탄자니아 복음을 거부하는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	 미얀마 정부의 규제와 단속에도 교회, 고아원, 사역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네팔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의 반대에 직면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도록	 라오스 각 부족의 성도들이 핍박을 견디고 전도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을 위해	
24	25	26	27	28	29
 카자흐스탄 교회 등록이 취소되고도 계속 사역해서 벌금이 부과된 잔자르 목사를 위해	 파키스탄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장악한 지역에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을 위해	 오만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오만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탄자니아 복음 전파를 위해 담대하게 사역하는 지역 교회들을 위해	 시에라리온 악마 숭배로 어두워진 지역의 성도들이 그곳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도록	
3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독교인들의 신실한 증언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순교자의 소리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RIDAY	SATURDAY
1 인도 바사바라즈와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2 모로코 정부가 규제하고 방해해도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8 오만 진리를 찾는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리를 발견하도록	9 이란 핍박받는 이란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히 12:1-2)
15 니제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난민이 된 니제르 성도들을 위해	16 오만 정부의 성경 판매 규제에도 성도들이 성경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도록
22 부르키나파소 이슬람 무장 단체의 공격에 남편을 잃은 에스더가 주 안에서 강건하도록	23 예멘 기독교 매체들이 예멘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29 이라크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공격당한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시기를	30 인도네시아 전도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카세의 징역형이 감형되도록



**네팔 기독교 박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

**바로 지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선 이야기 속 아누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마자 가족과 집에서 쫓겨 나고 지역 사회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네팔에서 새신자들은 대부분 예외 없이, 가족과 지역 사회의 거센 반대에 직면합니다.

최근 힌두교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전문가들은 네팔의 기독교 박해가 계속해서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팔 기독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은 다가올 박해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순교자의 소리는 2026년, 네팔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4주 과정의 훈련 프로그램을 9차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들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 4주 과정에는 약 3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며, 총 9차례 진행함으로써 총 270명의 수강생이 이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 11만 5천 원으로 4주 프로그램을 학생 1명이 수료할 수 있고,
- 55만 5천 원으로는 4주 프로그램을 학생 5명이 수료할 수 있으며,
- 1백 15만 원으로는 4주 프로그램을 학생 10명이 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이 훈련 과정에 네팔 기독교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바로 오늘, 아래의 방법으로 동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네팔 사역'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계좌 송금 시 입금자명과 함께 '네팔'이라고 적어주세요. 네팔 현금이 훈련 프로그램 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또한 네팔의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사역에 사용됩니다.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생명의 말씀으로 흑암에서 해방되다

예수를 찾아 나선 여정이 한 네팔 남성을 악령에 사로잡힌 광기에서 용기 있는 복음 사역으로 이끌었다.



마헤시 무키야(Mahesh Mukhiya) 목사는 차분한 성향과 조용하지만 강인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무키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며, 네팔에 자신이 사는 지역 주민들 모두가 복음을 듣고 지역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지금 그가 누리는 평안은, 그와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겪었던 악몽 같은 삶과는 천지 차이이다.

마헤시의 남동생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이는 뇌 화학 작용이나 신경병리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가족들을 만지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광기의 기운이 전염되곤 했다.

마헤시와 동생은 강력한 약을 복용했음에도 잠을 자거나 쉴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근처 힌두 사원에서 일정하게 들려오는 힌두교 의식 소리를 들었다. “때로는 그 영혼들, 악령들이 소리를 내곤 했어요”라고 마헤시는 말했다. 마헤시는 집안 곳곳에서 비명이나 몸부림 치는 것 같은 끔찍한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왔다고도 했다. 그 영혼들의 목소리가 마헤시의 가족은 파멸할 운명이라고 말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내 안에 깃들어 있던 영들, 즉 힌두교 신들인 브라흐마(Brahma), 비슈누(Sishnu), 시바의 영 모두 ‘내가 이 가문을 끝장내겠다’라고 말했어요.” 마헤시가 회상하며 말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자유가 찾아왔다.

말씀이 길을 열다

어느 날 마헤시의 여동생 알리샤(Alisha)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신을 움아매던 어두운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알리샤는 그 광기가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고, 가족들 역시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만 그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임을 즉시 깨달았다.

알리샤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자유케 하고 치유해 주셨는지 설명하며, 자신의 믿음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또한 가족들을 위해 홀로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 따지며 알리샤를 비난하다가 결국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집을 떠나기 전, 알리샤는 마헤시의 방에 복음 전도지와 작



은 신약성경 한 권을 남겨두었다.

신약성경을 발견한 마헤시는 그것이 행운의 부적이 되어주길 바라며 남동생의 베개 밑에 끼워두었다. “한밤중에 동생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날부터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마헤시가 말했다.

지친 이들을 위한 안식

마헤시는 즉시 남동생을 데리고 알리샤의 교회에 찾아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 했다. “나와 동생이 치유를 받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마헤시가 목사에게 묻자, 목사는 아무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켜 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그 순간 마헤시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은 내게 매우 의미가 깊은 밤이었습니다. 더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헤시는 말했다. 잠에서 깨어난 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성경을 샅샅이 뒤졌다.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마헤시는 어느새 그가 속한 마을에서 예수님의 선하심을 전하고 있었다.

목사에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마헤시는 가족 15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 8개월 후 그는 세례를 받았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곧바로 신학교에 진학하였다.

◀ 마헤시는 악령에게 억압받던 당시, 근처 힌두 사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른 끔찍한 소음들과 뒤섞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으며 고통이 더해졌다고 고백했다.



▲ 수백 명의 분노한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마헤시의 가정 교회를 포위했다. 일부는 건물 안까지 침입해 마헤시와 어머니를 폭행하고 교회 장비를 부숴다. 당국은 마헤시와 가해자 모두를 경찰서로 연행해갔다.

금습

학업을 마친 마헤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가족 15명과 함께 집에서 가정 교회를 시작했다. 이후 마을에서 전도 활동을 펼친 결과, 교회 성도는 약 120명으로 늘어났다.

2024년 6월 15일 마헤시가 예배를 인도하던 중, 수백 명의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집을 포위하고 난입했다. 그리고 그 충돌 장면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겠다고 촬영까지 했다. 그들의 무례한 행동이 놀라웠지만 평화를 지키기로 결심한 마헤시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자리에 앉는 게 어떠냐고 권했다. 그러나 극단주의자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며 언쟁을 벌였다. 급진주의자들의 우두머리가 마헤시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왜 우리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는 거요? 전에는 그저 당신 가족만 기독교인이었지만, 이젠 수백 명을 개종시키고 있지 않소!”

고성과 몸싸움은 점점 격렬해졌고, 결국 한 남자가 마헤시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또 한 사람은 마헤시 어머니의 얼굴을 때려 치아를 부러뜨렸다. 악기와 장비를 부수는 사람들도 있었다. 10분 정도 지나고 경찰이 도착해 가해자 중 일부를 체포했고 나머지는 돌려보냈다. 마헤시와 교회 지도자 몇 명도 경찰서로 동행해야 했다.

경찰 당국은 마헤시에게 군중의 규모가 컸고 폭력 사태가 확대될 위험이 있었으니, 급진주의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다.

마헤시는 이렇게 답했다.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누가 오른뺨을 치

거든 왼뺨도 돌려 대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못한 힌두교 극단주의자 집단은 마헤시와 기독교인들이 더는 설교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금지해 달라고 경찰 당국에 요구했다. 그때 누군가 마헤시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질문을 던졌다. “대체 그는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난 놓치지 않았어요.” 마헤시가 말했다. 적대적인 힌두교 급진주의자들로 가득 찬 군중 앞에서, 마헤시는 자신의 소망의 이유를 전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외쳤고, 교회는 그를 환영했다.

추방당해도 헌신하는 성도들

마헤시는 자신을 폭행했던 사내를 마주친 적이 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의 그 밤 이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가끔 길에서 마주칠 때면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지만, 나는 항상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봅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고, 진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와 같은 이들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핍박이 과거의 일로 끝나지는 않았다. 마헤시는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첫 번째 공격이 발생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을 때, 교회에 다니던 8가정이 지역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일도 있었다.

마헤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족과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며, 이를 위해 겪는 고난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라고 가르친다. 그는 이사야서 41장 9-10절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지속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헤시는 악령의 압제라는 어둠에서 자신을 불러내어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이들 역시 그 빛으로 인도하겠다는 부르심을 변함없이 지켜내고 있다.

“이 지역에 행정구가 총 22개 있는데, 모든 구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무엇도 복음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마헤시의 말이다.

▼ 마헤시는 자신이 사는 지역 곳곳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네팔 사람들이 여성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소망한다.



2026 하반기 드디어 제주도에서 지하신학교가 열립니다!

지하신학교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신구약 말씀을 통해 깊이 이해하고, 나를 구원하기위해 돌아가신 '작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계신 '큰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2025년 지하신학교 참석자들의 피드백

“교회는 많지만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어려운 시대이다. 순수한 말씀만 증거되는 귀한 학교다” - 문○목사

“1강만 들어도 등록금이 아깝지 않다. 복음에 대해 배우고 은혜에 감격하게 된다” - 김○○집사

“종교의 자유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시간이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는 성도라면 꼭 한 번 들어보도록 추천한다” - 김○○집사

신청방법 및 강의내용

■ 6개월 과정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월 1회 (8/22, 9/19, 10/31, 11/21, 1/23, 2/20)

※ 날짜 변경시 2달 전에 미리 안내 드립니다.

■ 훈련비 : 400,000원 (6개월 과정, 식사 제공)

■ 강 사 :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 / 현숙 폴리 대표

■ 장 소 : 순교자의 소리 제주홀 (구체적인 장소 정보는 등록 시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 010-3151-2065 / 02-2065-0703

※ 지하신학교는 목회자와 성도, 모든 기독교인이 신구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훈련합니다. (별도의 학위는 없습니다.)



8/22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다윗의 자손으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9/19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10/31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11/21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1/23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2/20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폴리 목사의 <신간 도서>

지하신학교 강의 내용을 담은 『복음』 책과 양육교재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소개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복음』



에릭 폴리 · 현숙 폴리 지음 | 20,000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깊이 있게 배움으로써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 그 이상의 온전한 의미로 이해하고 그분의 재림을 향한 소망을 꿈꾸게 한다.



실제적이고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제자훈련 방법을 제시하는 책 『모든 것을 드리는 삶』 ①, ②

에릭 폴리 지음 | 30,000원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은 마태복음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개인, 가족, 셀 그룹, 교회가 순종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제자훈련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그리스도의 10가지 “사랑의 실천사역”(선행하기, 떡 나누기, 집을 열기, 치유하기, 용서와 화해 등)과 7가지 “경건의 행위”(내적인 영적 훈련, 즉 성경말씀 찾기, 기도, 예배, 배플기 등)의 의미를 성경 원문에서부터 배우고 실천하게 도움으로써 기독교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한다. 12개월 동안 각 주제를 한 달씩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매년 반복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아래 영상과 정보를 통해 네팔의 핍박받는 형제자매에 대해 배우고 히 13:3 말씀을 실천하세요!



교회, 단체, 가정, 소그룹과 네팔의 세존 이야기를 담은 단편 영화를 함께 시청하세요.



왼쪽 QR코드를 통해 네팔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 알아보세요.

모집공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핍박받는 형제자매를 위해 먼저 사용하세요!

서울 사무실

● 사무행정 간사 데이터 관리 및 입력, 사무실 관리, 구매 및 일반 행정 업무 등

대전 사무실

● 북한사역 간사 단체에서 운영중인 탈북민 선교 학교의 행정 및 관리, 수업 / 행사 준비 및 진행

시설관리 매니저

● 자원봉사팀 간사 여러 지역에 위치한 단체의 시설 관리/유지

자원봉사팀 간사

● 디지털컨텐츠 간사 단체 후원자 및 소식지 구독자들과의 소통, 사무실 방문 봉사자 섬김

번역가

● 부산 사무실

자원봉사팀 간사

● 디지털컨텐츠 간사 단체 후원자 및 소식지 구독자들과의 소통, 사무실 방문 봉사자 섬김

번역가

● 자격 기독교인 / 관련 영역 경험자, 영어 가능자 우대

☎ info@vomkorea.com으로 이력서를 접수하시면 단체 내규 지원서를 보내드립니다.

사무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숭실로 26 지층
문의: 02-2065-0703 (화~토 9:00~5:00)

www.vomkorea.com/donation
후원계좌: 국민 463501-01-243303

도서 구매는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국민은행 463501-01-244988